

## 음식점 등 1회용품 사용, 4월부터 신고자에 포상금 수원시, 최고 30만원 ... 업주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오는 4월부터 수원시내 대형 음식점과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내 1회용품을 사용하는 사업주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수원시는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라 시의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 오는 4월부터 신고 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식품접객업소(음식점), 목욕장, 숙박업소, 대형 할인점 및 마트 등 1회용품 사용 억제 사업장이다.

따라서 식품접객업소, 목욕장, 숙박업소, 대형 할인점 및 마트, 도·소매업소, 운동장, 체육관 등에서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재활용품 교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않는 등 위반 사업장의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이나 목욕장, 숙박업소, 대형 할인점 및 마트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최소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는 위반행위를 목격한 후 7일 이내에 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히 식별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등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상자판기의 1회용 컵 제공행위, 도·소매업소의 소형종이봉투(A4규격 이하) 무상 제공 행위, 소규모 판매업소(33㎡미만)의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행위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제도 시행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유관 기관 및 시내 주요 계시관 등에 홍보 포스터를 붙이고 통반장회의 등 각종 교육시에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의 사용자인 소비자의 직접 참여를 통해 1회용품 사용억제의 생활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 환경마크 도안 변경

### 금년 하반기부터 국제적 감각에 맞는 세련된 도안으로 변경

환경부는 '92년부터 친환경상품에 부착해 온 환경마크(표지) 도안을 대체하는 새로운 환경마크 도안을 마련하고 이를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환경마크 도안을 변경하게 된 것은 기존의 "환경마크"가 "친환경적이며 품질도 우수한 상품"이라는 환경마크상품 본래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감각 면에서도 다소 세련미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기업체, 소비자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그동안 환경마크 도안변경을 위해 환경부에서는 작년 9월부터 디자인 전문회사인 (주)옵티디자인사에 의뢰하여 2개의 시안을 마련하였으며, 선호도 조사결과 대부분 응답자들은 새로운 환경마크 도안을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기존 마크보다 "친환경 이미지를 잘 전달함(45%)", "도안이 세련되었음(43%)" 등을 이유로 들었다.

환경부에서는 이번에 새로이 마련된 환경마크 도안을 금년 상반기 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새로운 도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상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해 친환경상품 구매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칭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정을 금년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환경마크 도안을 새롭게 변경하고 친환경상품구매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친환경상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이들 상품의 보급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석회잔류물을 건설재료로 재활용하는 기술 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석회잔류물을 건설재료로 재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건기연의 관계자는 석회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회찌꺼기와 흙 입자를 화학적으로 처리하고 강도 및 내구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것으로, 앞으로 이 기술을 적용해 석회잔류물을 일반 도로구조물의 기초공사나 대규모 건축물 공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석회잔류물 재활용 기술개발로 연간 500억원 상당의 공사비 절감과 건설폐기물 절감, 그리고 환경문제 개선, 건설재료의 원활한 수급 등의 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석회잔류물은 작년 말을 기준으로 320만 톤이 발생했고, 재활용 된 것은 약 14.7%인 47만 톤이다.

## □■ 이젠 '지속가능한 제품'이다

지난 2월20일, 환경방송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설문조사에 따라 전기전자업종 111개사 중 30개사(27%), 섬유직물업체 54개사 중 25개사(46%)가 EU를 중심으로 한 외국의 환경규제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도했다.

환경방송은 이는 국제 환경규제가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짐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국에 유리한 상품을 환경친화상품으로 포함시키는 등 선진국에서 거의 일방적인 환경규제를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날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 지원센터 주최로 '지속가능 제품개발 기반구축을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고 보도했는데, 이날 행사에서는 경제성에 환경성이 가미된 친환경제품에서 사회성까지 가미해 지속가능한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환경제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선진기업인 후지쯔, 필립스, 3M, 노키아 등에서의 활동내용을 소개하고, 이날 참석한 산업자원부 이기형 사무관은 "다양한 국제환경규제에 대해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대응체제가 미비하거나 구축 단계에 있다"며 "정부차원의 합동 대응체제로 올해 산자부에서는 400억원을 들여 청정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며 환경부에서도 700억원을

들어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 □■ 내년부터 휴대폰·오디오도 재활용 의무 생산자책임제도 대상 포함 … 대상 연차적 확대

내년부터 휴대폰과 오디오도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에 포함된다.

환경부와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올해 형광등과 라면 봉지, 과자 봉지 등 필름형 합성수지재질포장재를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에 의한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에 포함한다 이어 내년부터 그 대상을 휴대폰과 오디오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폰, 오디오의 제조·수입업자는 올해 3월말 작년의 출고·수입실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의한 재활용 의무 대상 15개 품목을 연차적으로 늘려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재활용 의무품목에 포함된 필름류와 형광등의 재활용시설을 추가로 준공하는 것은 물론 세제지원을 통해 재활용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환경단체, 맥주 페트병 재활용 촉구 재활용업체 설비 없어 1,000만개 그냥 방치

소비량이 늘고 있는 맥주 페트병에 대한 재활용 촉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는 지난해 연말부터 출시된 대용량 갈색페트병 용기가 재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업계와 정부에 재활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출시 3달째인 페트용기의 맥주는 지난 1월에만 157만 박스(6병)가 출시돼 현재 1,000만개 이상의 페트용기가 소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재활용 설비가 없어 재활용업체의 창고에 쌓여 있는 실정이다.

쓰시협은 생산자들로 하여금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만들도록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됐음에도 불

구하고 재활용이 힘든 페트병 용기의 출시를 강행했다고 생산업체를 비난했다. 유리병 재사용은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 다른 재활용 방법보다 친환경적으로, 유럽 일부국가의 경우 페트병이나 캔으로 된 음료 용기를 유리병 재질로 대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지적이다.

쓰시협은 맥주업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갈색 페트 용기도 어느 페트용기처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환경부에 대해서도 전년도 출고량을 기준으로 의무량을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개선, 갈색 페트병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 폐기물 수입 연간 50억원 수준 대부분 폐배터리 차지 … 수출은 1%에 불과

폐기물 수입을 통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연간 5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외국에서 수입된 폐기물은 2만453톤으로 수입을 위해 들어간 비용은 441만6,000달러(약 52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으로 수출된 폐기물은 59톤 4만1,000달러(약 5,000만원)로 수입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수입의 주요 품목은 폐배터리로 2만349톤, 439만5,000달러에 이르렀으며, 나머지는 PVC 피복폐전선으로 104톤2만1,000달러로 집계됐다. 수출의 대부분은 PCB 폐액으로 연간 55톤이 수출됐으며, 이온교환수지는 4톤이 외국으로 팔려나갔다.

## □■ 박결호 차관 환경부장관으로 임명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한명숙 전 환경부 장관 후임에 박결호 현 차관을 내부 승진, 제15대 장관으로 전격 임명했다.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공고를 졸업하고 기술고시에 합격한 뒤 공직에 입문한 이공계 출신으로, 수질보전국장과 환경정책국장 기획관리실장, 환경부 차관을 지낸 환경전문가이자 환경부 자체

출신의 최초 장관"이라고 밝히고, 이어 "앞으로 개발과 환경보전 환경정책과 다른 국가정책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환경정책을 충실히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임명 연유에 대해 말했다.

곽결호 신임 장관은 영남대 토목공학과와 기술고시 9회 출신으로 지난 76년 건설부에서 공직에 몸담았으며, 94년 5월 환경부에서 상하수도국장을 역임하여 대부분 물 관리 분야를 섭렵했다. 지난 99년 한강특별법을 비롯하여 지난 2001년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나머지 3대강 특별법까지 제정하는 등 수계관리의 기념비적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 □■ 피에스테크, H형강 재활용 공법 개발

매일경제신문은 지난 2월19일자에 토목공사전문건설업체 피에스테크(www.PS-Tech.co.kr 대표 황문삼)가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철강재 엄지말뚝(H형강)을 재활용할 수 있는 'H형 강 인발공법'을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 공법은 흙막이가 시설 공사나 기초공사시 사용되는 H형강에 자체 개발한 피복재 '피에스백(PS-Bag)'을 씌워서 공사가 끝난 후 H형강을 뽑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이며, 피에스백은 공기층을 이용한 다층구조 피복재로 시멘트와 H형강 사이에 공간을 형성해 시멘트가 굳은 다음에도 철강재를 분리 가능케 한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이 신문은 피에스테크 황문삼 대표가 "여태까지 H형강 재활용법이 없어 콘크리트 타설 후 토류벽 구조체와 함께 땅속에 사장돼 연간 3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엄지말뚝 인발공법을 도입하면 자재비, 철강재를 뽑는 인 발비, 설치비 등 실투입비가 35%이상 줄어들어 연 1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고 설명하고 더불어 H형강이 부식되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한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피에스테크는 이 공법을 구로동 벽산 디지털 밸리, 암사동 이수 브라운 스톤아파트, 대전 오류동 아주타운 건설현장에 이미 적용했으며, 국내 특허도 출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서울 소형상가 밀집지역 재활용품 분리 28%불과

문화일보는 서울 청계천 등 소형상가 밀집지역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의 3분의2 이상이 분리 배출되지 않아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2월21일자에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최근 서울시내 14개 자치구의 15개 단독주택지역과 7개 상가 지역의 재활용품 및 종량제봉투를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율을 조사한 결과 소형상가 밀집지역의 분리율이 2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화점 등 대형 상가는 전문청소용역업체가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전담해 분리율이 100%로 조사됐다고 전하고 있다. 또 일반 주택의 슈퍼마켓 등 분산 단독 상점은 자치구에서 일반주택과 같은 방법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해가 분리율이 73~91%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21일자 보도에서 유기영 시정연 연구위원이 "서울시내에서 하루 1만 톤에 달하는 생활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재활용품도 상당수 버려지고 있다"며 "재활용품 수거율이 낮은 소형상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재활용촉진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원은 4개 자치구 단독주택 4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2%가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섞어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고, 77%가 분리배출 종류를 단순화하고 수거횟수를 1주일에 2~3회로 늘리는 등 "수거방법을 편리하게 바꿀 경우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 □■ 폐기물을 재자원화 할 수 있는 생태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 구축 본격 착수

산업자원부는 오염 배출물이나 폐기물 및 폐에너지 등을 발생한 기업으로부터 이들을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후 단지내 수요기업에게 전달하여 원료 등으로 재자원화함으로써 오염배출이 최소화되고 에너지절약이 가능한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 시범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범생태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기관 선정 및 관리요령(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63호)' 을 공고하여 529개 국가, 지방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금년 3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공모한 후 상반기 중에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파급성 등을 고려하여 3곳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산업단지는 올해 하반기에 사업실험약을 체결하고 단지별 참여기업 위주의 원료와 폐기물 현황 및 부산물 이용현황 등 세부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부산물교환망 구축안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개별 기업단위 소요기술, 기업간 재자원화를 위한 네트워크기술 등 요소기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과 환경경영체제 구축 등 패키지로 지원하며,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인프라에 대해서도 환경설비자금 융자(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5.5%)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금번 시범 생태산업단지 사업 신청은 생태산업단지 구축과 연관이 있는 참여기업들이 지자체 전문기관 등과 함께 생태산업단지 추진협의체(가칭)를 구성하여 응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더욱 좋은 방안이 있을 경우 변형된 자유응모도 가능하다.

또한 동 사업 추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3월초부터 산업단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자체와 지역주민 및 환경NGOs들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할 계획이다.

생태산업단지의 구축은 기존 산업단지의 인접 주민들 사이에 발생하는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 해결과 개별 기업 위주의 청정생산기술개발 지원 효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미국, 일본 등에서는 정책적 지원은 물론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상당한 사업 추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 □■ 쓰레기에서 연료를 뽑아낸다

세계일보 2월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원주시가 전국 최초로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연료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원주시에 따르면 흥업면 사제리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내년까지 모두 109억원을 들여 하루 80t 처리 규모의 연료화시설을 갖춰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연료로 가공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고, 이를 위해 최근 관련 전문회사인 도화종합기술공사로부터 사업기본계획서를 납품받았으며, 오는 5월까지 사업자를 선정하고 9월쯤 공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히고, 연료화시설이 본격 가동될 경우 현재 하루 150t에 이르는 가연성 생활폐기물 가운데 80t가량이 연료로 가공돼 실질 매립량은 70여t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며, 이에 따라 2005년까지 사용 승인을 받은 현재의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이 30년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신문은 원주시는 연료화사업이 성과를 거둘 경우 국비지원을 받아 처리용량을 확대해 가연성 생활폐기물 매립량을 10t 이하로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 □■ 'Good Recycled' 인증 총 206건으로 확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004년도 제1차 NT, EM, GR 인증서수여식' 을 지난 2월 24일 기술표준원 강당에서 가졌다. 수여대상은 13업체 13품목으로 우수재활용인증(GR: Good Recycled) 3개 업체 3개 품목을 비롯해 신기술인증(NT: Korea New Technology)이 5개 업체 5개 품목, 우수품질인증(EM: Excellent Machine, Mechanism & Materials) 5개 업체 5개 품목이었다. 이번 인증으로 NT(신기술인증)는 총583건, EM(우수품질인증)은 총905건, GR(우수재활용인증)은 총 206건이 인증되었다.

GR 마크는 국내에서 발생된 재활용 가능자원을 이용, 제조하고 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 환경친화성이 높

고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수요조사를 통해 우선 발굴, 선정한다. 하지만 재활용제품이라도 재자원화가 어렵거나 2차적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제품 등 환경친화성이 낮은 제품과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우수재활용인증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수재활용인증을 받은 제품은 산업기반기금 또는 산업기반기금개발사업자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융자 자금, 창업지원기금의 융자 자금, 단체적 수익계약 품목 지정, 정부 및 공공투자기관 등의 의무 구매, 기타 관계법 및 법률에서 정한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

### □■ 환경관리공단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만익)은 2004년도에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도확충사업의 본격추진” 및 “환경개선지원자금의 조기집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4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도확충사업은 상수원 수질의 조기 개선을 통한 국민 건강질 향상과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도 보급률 향상('01년 27% → '07년 75%)을 위하여 남강댐 등 7개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2007년까지 10,853억원을 투자하여 461개소의 하수처리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2004년도부터 민간투자방식으로 본격화될 본 사업은 인력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IT와 ET를 접목한 중앙원격 감시제어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추진되어 하수도 시설의 경제적인 건설과 운영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설설치 전과정(LCC)에 대한 기술고도화에 역점을 두는 한편, 기존의 점오염원 관리중심에서 비점오염원의 효율적 관리로 전환하고, 홍수시 도시침수 방지를 위한 지하우수저류시설 설치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될 계획이다.

또한, 공단이 운영하는 환경개선지원자금(약 3,700억원)을 조기에 지원하여 지자체 및 민간기업의 각종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침체된 내수경기에 활력소를 불어넣어 국내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 폐배터리를 재활용한 완구 출시

국내 벤처기업인 아이큐토이(www.iqtoy.net 대표 유경민)는 최근 중국 가전업체인 하이얼과 기술합작 계약을 맺고, 휴대폰 배터리를 전원으로 활용한 기능성 완구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밝힌바 있다.

아이큐토이는 자사의 휴대폰 배터리 수납 기술을 하이얼 측에 로열티를 받고 제공하고, 하이얼은 이 기술이 적용된 완구 제품을 생산해 자국내에 판매하게 되며, 중국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아이큐토이가 완제품 독점판매권을 갖는다.

아이큐토이가 개발한 휴대폰 배터리 수납 기술은 폐 휴대폰 배터리 혹은 스페어 배터리를 일반 아동 작동완구나 플래시·MP3P·CDP·카세트 등 대부분의 생활기기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배터리 재활용 기술이다.

수납부 내부에 전원공급용 단자 측면을 제외한 나머지 3측면에 각각 설치된 탄성가압 기구를 이용해 서로 다른 접점과 양극·음극 배열을 가진 휴대폰 배터리를 대부분 적용할 수 있고, 다양한 전압에서도 성능 저하가 없도록 설계된 게 특징이다. 현재 이와 관련해 국내 특허 2건 및 대만 특허 등 3건의 국제특허를 출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큐토이는 우선 하이얼이 휴대폰 배터리 수납 기술을 적용해 제작한 리모콘 강아지 로봇, 무선자동차, 007자동차, 그랜드 피아노, 영어학습기 등 5가지 완구 모델에 대해 국내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며, 하이얼도 독자적으로 이번달부터 이들 모델에 대한 현지 판매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품은 휴대폰 배터리뿐 아니라 기존 전지까지 겸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 □■ 환경친화기업 환경성 강화 및 지도점검 면제확대, 브랜드화도 동시 추진

환경부는 환경친화기업(146개 업체)을 환경개선과 경영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지정과 이행관리 요건을 강화하고, 선진적인 환경경영 기법을 도입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정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동시에 지도점검의 면제대상을 환경 전문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친화기업을 상징하는 로고를 만들어 기업 홍보·활동 등에 활용토록 하는 등 하나의 브랜드로 추진하고, 금년도를 「환경친화기업의 글로벌화」 원년으로 정하여 환경친화기업과 정부가 합동으로 단계별 글로벌화 전략을 금년 내 마련한다.

환경부가 마련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운영규정 개정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재지정 포함) 받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 대비 먼지, BOD, COD, SS항목은 50%이하, SO<sub>x</sub>항목은 60%이하, NO<sub>x</sub>항목은 7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친화기업이 사전에 환경설비 보강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SO<sub>x</sub>, NO<sub>x</sub> 항목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적용한다.

또한, 대기수질·폐기물·유해화학물질 등을 필수 평가항목으로 지정하여 우수(80%)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지정 및 지정유지가 가능토록 하였고, 세부평가기준(체크리스트)을 새로이 개발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친화기업의 경영방식을 보다 더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친화기업지정 평가시 외국 선진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보고서 작성·공개, 전과정평가 등 환경경영기법 도입,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 등 환경경영을 실천하거나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지정에 앞서 최고경영자(CEO)로부터 지속가능경영 실천의지 등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최고 경영자의 환경마인드를 제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친화기업(현재 4개 업체)으로 육성을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환경친화 대기업에 적용하는 법 기준 대비 50~70%의 배출강화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정점수 400점 중 280점 이상이면 친화기업 지정이 가능(대기업은 320점 이상)하도록 하여

지정평가기준을 대기업과 차등화 하여 적용하고, 우수 중소기업이 환경친화기업으로 많이 지정되도록 기술지원을 보다 강화하며, 환경친화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세제감면 등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친화기업에 대한 지도·점검 면제범위를 기존 대기 및 수질의 두 분야에서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소음·진동 및 오수분야까지 확대하여 지난 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의 이러한 계획은 국내 환경친화기업이 환경관리와 경영에 있어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기에 글로벌화하여 국내환경개선에 앞장섬은 물론 국제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고, 이에 맞춰 정부차원의 인센티브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 ■ 재생(순환)골재 및 재생(순환)골재 콘크리트 정책·기술 세미나 개최

한국콘크리트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가 주최한 ·재생(순환)골재 및 재생(순환)골재 콘크리트 정책·기술 세미나·가 지난 2월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최근 세계적인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함께 건설산업 분야에서 자원절약 및 폐기물의 재활용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됨과 동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가운데 특히 폐콘크리트로부터 얻어지는 재생(순환)골재는 성토용 등의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콘크리트용 골재로서의 사용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접근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재생(순환)골재를 콘크리트산업에서 활용할 경우, 부족한 골재자원 문제에 대한 해결과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훼손의 저감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한국콘크리트학회 재생콘크리트위원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수년간 재생(순환)골재와 재생(순환) 골재콘크리트에 대하여 많은 연구와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성과를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재생(순환)골재의 콘크리트용 골재활용에 대한 인식과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한국콘크리트학회 재생콘크리트위원회 변근주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많은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재생(순환)골재와 콘크리트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건설산업에 미약하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도현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국내재생(순환)골재의 생산 및 활용현황”이란 주제로, 이세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재생(순환)골재 및 재생(순환)골재콘크리트 정책현황”이란 주제로, 김진철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 책임연구원이 “재생(순환)골재의 도로공사의 활용”이란 주제로 연구자료를 발표했다.

## □■ 음식쓰레기 및 폐기를 해양배출 허용

해양부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양배출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유전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수의 배출허용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나 퇴비로 만들 때 나오는 잔존수와 어폐류를 이용해 젓갈을 만들 때 발생하는 폐기물 등의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것이다. 또 해저 유전을 개발할 때 나오는 ‘생산수’(기름 섞인 바닷물)의 해양배출 허용기준도 현행 기름함량 15ppm에서 40ppm으로 높아져 유전개발업체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해양부는 음식물 잔존수나 젓갈 폐기물의 경우 육상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토양오염이나 악취의 원인으로 지적돼 해양배출을 허용키로 했다고 전하고 바다 오염을 유발할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유전 생산수의 배출허용 기준도 미국(42ppm), 유럽(40ppm) 등 선진국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에서는 음식물에는 중금속이 거의 없어 해양오염 위험성이 낮고 오히려 바다생태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전하고 유전 생산수의 배출기준 완화도 해양환경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재활용 업체 폐자원 모으기 적극 동참 (사)한국자원재생활용협회 ... 재활용 실천의 날 선포

재활용업체가 숨은 폐자원 모으기에 적극 나섰다.

(사)한국자원재생활용협회(회장 장준영)는 지난 3월 25일 전경련 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숨은 폐자원 찾아 모으기 운동 추진을 위한 2004 전국 재활용 지도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국 재활용업체 대표 및 지도자(회원 및 특별회원), 관련기관 및 단체 인사, 관련 공무원, 시민, 부녀회 등 200여명이 참석해 11일을 재활용 실천의 날로 선포했다.

11일은 일일이 재활용하자. 또는 날날이 재활용하자 는 뜻을 담고 있다.

협회는 2004 전국재활용지도자 대회를 맞이하여 매월 11일을 재활용 실천의 날로 정함과 동시에 1이 4번 반복되는 11월 11일을 재활용의 날로 정하였음을 대내외에 알리어 재활용 종사자들의 분투와 각오를 다지고 각계의 동참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이를 공포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현재 협회는 중앙회 회장단과 이사, 전국 14개 시·도지부 그리고 23개 재활용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고 시·도지부는 예하 시·군·구에 184개 지회가 결성되어 있으며 전회원을 동원해 숨은 폐자원 찾아 모으기 운동 및 재활용 추진에 총력을 기울린다는 계획이다.

협회 장준영 회장은 “2003년부터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함으로써 재활용을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해 오고 있다”며 “특히 2003년 하반기부터는 중국특수 등의 영향을 받아 금년에 들어 국내의 심각한 자재부족란을 겪고 있는 실상을 보고 협회에서는 어느 해보다도 강도 높은 숨은 폐자원 찾아모으기 운동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